

올 1~3월 광주 차탈이 지난해보다 43.6% ↑

최근 3개월 간 차탈이 112건 중 105건 검거...검거율 93.75% 전년 1~3월 발생 78건보다 급증...수사 집중·피해 회복 최선

광주에서 최근 석 달 간 발생한 차탈이 범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은 오는 6월까지 집중 단속·검거에 나서는 한편, 차탈 잠금 장치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차탈이 범행은 112건이다. 이 가운데 105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93.75%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2년 1~3월) 차탈이 78건이 발생, 41건이 검거됐다. 검거율은 52.6%다.

검거율은 지난해보다 높아졌지만 차탈이 범행 발생 자체는 43.58% 늘었다.

실제 최근 광주에서는 차탈이범이 잇따라 검거됐다.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광주 동구 학동·남구 양림동 일대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차 차량에 침

입, 13차례에 걸쳐 48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A(40)씨가 구속된 바 있다.

지난달 5일 오전 2시 38분께 잡혀 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78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C(32)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오후 2시에 서구 도심 아파트 주차장 등지를 돌며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7차례에 걸쳐 930만 원 상당 현금 등을 훔쳐간

B(15)군이 검거, 구속됐다.

이에 경찰은 향후 범죄 취약 지역·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 활동을 펼친다. 또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강·절도 등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강·절도 사건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피의자를 신속 검거하고 장물 판매상 등을 추적,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적극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차탈이 범행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리는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잠금 장치 확인 등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선욱기자



완도해경, 실전과 같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4일 3층 영상회의실에서 화물선과 낚시어선 간 충돌·전복된 상황을 가정한 "2023년 1차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여수경찰, 자치경찰위원회 치안현장 간담회 개최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는 지난 4일 여수경찰서와 봉산파출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수=김현근기자



담양경찰, '대출사기' 피해 막은 농협 직원에 감사장

담양경찰서(서장 박송희)는, 지난 5일 담양 소재 A농협을 방문하여 보이소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을 전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경찰, 신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신학기를 맞아 지난 4일 여성청소년계장 등 5명이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비행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이웃리치 활동을 펼쳤다. 나주=송준표기자



진도소방,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안내

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를 위해 법령제·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광주 동부소방, 의용소방대 신속한 대처로 대형 산불 막아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신속한 대처로 차치 대형 산불로 번질 수도 있는 화재를 막았다고 4일 밝혔다. 이슬비기자

“돈으로 시간을 사다”...놀이공원 패스권에 ‘와글와글’

“문제 없다” vs “공정 해쳐” 네티즌 갑론을박



지난 2일 SBS '집사부일제'에 출연한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뇌과학 교수의 놀이공원의 '패스권' 시스템을 예로 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시간을 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정당인가"라는 주제로 패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정 교수는 "아이들이 어릴 때 그걸 보고 어떤 가치를 배우게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다수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등에서는 추가 요금을 지불해 놀이기구 탑승 대기 시간을 줄이는 이른바 '패스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놀이기구의 좌석 일부를 패스권 소지자들에게 먼저 개방해 이들이 일반 대기 고객보다 빠르게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먼저 줄을 선 사람들이 서비스를 먼저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이 경우에는 돈을 더 낸 사람이 새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게 정당인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방송에 출연한 격투기 선수 김동현은 "부모로서 아이한테 이런 상황을 보여주기가 싫다. 안 할 것 같다"며 "나이가 있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게 양보하는 것도 사회를 살면서 가르쳐줄 가치가 아니냐", "돈이 많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싶다"고 답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패스권 운영에 찬성하는 이들은 "가격에 따라 서비스에 차등을 두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돈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다. 자본주의 사회라면 충분히 돈으로 시간을 살 수도 있지 않냐", "비행기 좌석 등급에 차등을 두는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패스권에 반대하는 이들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공정이다", "놀이공원은 아이들이 즐기 위해 오는 곳인데 변질해서 성인들이 패스권을 남발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더라", "어른들의 경제 논리를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저런 식이면 학교 급식도 난 돈에 따라 차등 적용되겠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놀이공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곳에서는 패스권마저도 일일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고 하더라. 고객을 더 끌어들이고자 하는 기업의 수단이다", "사고 싶지 않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할 적도 있다" 등의 반응도 있었다.

한편 지난 2022년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공정의 시작, 놀이공원 패스권. 이걸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자신을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돈을 더 내고 정상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과 달리 혜택을 받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며 "패스권은 돈을 이용한 갑질의 공식적 허용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슬비기자

치매父 살해 후 냉장고 유기 20대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검찰 "죄질 나빠, 1심 선고 형량 징역 9년 너무 가벼워"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5일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A씨는 앞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것을 자백하며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였다.

검찰은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양측에서 모두 추가 제출 증거나 피고인 신문을 생각한다고 밝혔기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호가 반드시 필요했던 부친을 살해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며 "패륜적인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이 너무 가볍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심이 이르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성장 배경이나 경위를 살펴야 한다"라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45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아버지 B(60)씨의 뺨과 가슴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지난해 3월에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자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당시 B씨는 당뇨와 치매 증상이 심해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음식과 약을 먹거나 병을 치료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약을 제대로 주지 않고 뜨거운 물을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히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과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기아 수준의 영양불량 상태였던 B씨는 끝내 숨졌다.

B씨가 숨지자 A씨는 시신 부패를 우려해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최이슬기자



빛속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외치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세종충남과 충북, 대전본부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2023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